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신 불멸의 업적

장 응 식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에 있다.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야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였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9권 169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었으며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필승의 보검을 안겨주신것이다.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만 실현할수 있다.

그런데 나라의 분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내부에는 통일애국력량과 반통일세력, 민주력량과 반민주세력사이의 첨예한 대립의 국면이 조성되였다. 여기에 미제의 민족분렬와해책동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대결에서 오는 후과가 겹쳐졌다.

남조선의 반공체제는 그것이 세워지게 된 역사적배경과 경위,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의 견지에서 볼 때 철저히 민족분열주의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대결체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대결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통일위업을 주동적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하여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있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대신할수 있는 힘은 없다.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이 아무리 많고 간고하다고 할지라도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단합된 힘으로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에 맞서 싸워나간다면 조국통일의 민족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이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조국통일의 본질적내용을 이루기때문이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의 근본전제이다.

력사적으로 대국들의 세력권쟁탈전의 대상으로 되어온 우리 민족사는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가 못지키는가 하는것이 결국 민족의 단결여하에 따라 좌우된다는것을 피의 교훈으로 남기였다. 미제를 비롯한 외부세력들이 언제나 우리 민족내부에 불화를 조성하며 이를 통하여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나라의 자주적통일의 근본전제로 된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근본전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인 동시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인것만큼 조국통일은 마땅히 평화적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성원모두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제도의 차이에 앞서 한피줄을 이은 한민족이라는 립장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민족사이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있으며 그에 의거하여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민족의 재결합을 이룩하여 민족의 단일성을 회복하는 문제인것만큼 조국통일은 그자체가 민족의 단합을 의미하는것으로 되며 본질상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것이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사이에는 계급적차이를 비롯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 제도와 신앙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개별적계급, 계층의 리익이나 사상과 리념이 아무리 중요한것이라고 해도 민족의 공동의 리익보다 더 크고 귀중할수는 없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도 있고 계급과 계층의 사상과 리념도 있게 되는것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녀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민족성이 남달리 강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기질은 온 민족의 단결을 위한 튼튼한 사상정신적바탕으로 된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족성원들의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서로 존중하고 믿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과 정견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민족성원들을 대하는데서는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를 중시해야 하며 민족앞에 떳떳치 못하게 살아온 과거를 가지고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오늘 자기의 과거와 결별하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믿고 포섭하여 그들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며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시켜야 한다.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서로 존중하고 믿는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 나가는것은 주체의 정치철학을 구현한것으로서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며 반통일세력에 대한 통일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성취할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민족대단결실현의 기본요구의 하나는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행동을 하지 않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은 북과 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 있으며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적단합의 주되는 장애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자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남조선에 우리의 사상을 강요하지 않고 남녘겨레들을 적대시하지 않는것처럼 남조선당국도 우리에게 대한 적대적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민족대단결실현의 기본요구의 다른 하나는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는것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어야 하며 그러자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 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련대, 련합을 강화해나가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수 있으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원칙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광복정치의 리념, 넓은 포용력과 도량을 지니시고 전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조국통일의 대전략으로서 미제의 민족분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불멸의 기치이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실현하여 전체 조선동포들을 망라하는 민족대통일 전선형성의 조직적토대를 마련하신것이다.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미제와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련합된 적대세력과 맞서 대결전을 벌리고있다. 그런것만큼 온 민족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민족통일의 성업을 성취할수 있다.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이 가지는 전략적지위를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이후 해내외의 각계 인사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진행하여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의 기틀을 마련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로 전민족적인 통일협상기구를 내올데 대한 방안을 제시하시여 3자련대를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고 민족단합의 지향을 고조시키시였다.

주체69(1980)년 11월 공화국북반부의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는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대표들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와 같은 민족공동의 협의기구를 내올것을 호소하였으며 이 제안을 담은 편지가 1 366명의 남조선의 정치인들과 각계층 인사들 그리고 870명의 해외에 있는 각계층 인사들과 동포들에게 발송되었다. 그후 북과 남, 해외 정치인들의 100인련합회의소집제안이 주체71(1982)년 2월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으로 발표되었다.

100인련합회의는 그 성격에 있어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의 산파역을 할 수 있는 협상기구로 발기된 것이었다.

우리의 거듭되는 제안들이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비록 성사되지는 못하였지만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았으며 전민족대통일전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해외동포들속에서 급속히 고조된 강렬한 통일열의와 민족단합의 지향에 토대하여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의 돌파구인 북과 해외의 련대부터 실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지난날 수난에 찬 우리 나라 력사의 비극으로 하여 수많은 동포들이 해외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으며 그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은 강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과 해외의 련대를 실현하는것을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해외교포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을 찾아오는 해외동포인사들이 북과 해외의 련대를 실현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도록 련공통일의 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해외동포들속에서 민족단합의 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민족의 기상이 약동하는 공화국북반부를 찾는 인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질겁한 남조선피뢰도당은 해외교포들의 공화국북반부방문을 봉쇄하기 위해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주체70(1981)년 11월 기자회견에서는 남조선피뢰들의 반민족적행위를 폭로단죄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해외동포인사들이 공화국북반부방문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 있는 김성락목사와 최덕신, 캐나다에 있는 최흥희, 서부도이칠란드에 있는 윤이상, 단마르크에 있는 교수 립민식 그리고 미국교포사회의 이름있는 인사들인 립창영, 선우학원, 문명자 등이 평양에 찾아왔다.

평양을 찾아온 해외인사들은 사회적지위와 처지, 분렬의 력사와 더불어 지나온 경력이 서로 달랐고 그들속에는 《반공》의 길을 걸어온 사람,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가슴속에 싹터나온 련공, 련북의 뜻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모두가 통일성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 보람있는 삶의 길을 걸어나가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북과 해외의 련대실현과 민족대통일전선의 형성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도록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과 해외동포들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실현해나가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 단체들은 해외민주인사들과 종교단체들에 편지를 보내어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 협상을 진행할것을 제기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주체71(1982)년 12월 헬싱키에서 제2차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들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공화국북반부를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등지에서 온 10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헬싱키회의에서는 민족주체적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가 중심문제로 토의되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들간의 제2차회의는 북과 해외동포 사이의 련대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뜻깊은 회합이었다.

주체73(1984)년 12월에는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북과 해외동포들간의 범동포대화가 열리고 비상설협의체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련합이 결성되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련합이 결성됨으로써 해외의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있는 동포들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불려일으키며 통일운동의 자연발생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고 애국운동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여러 대륙의 해외동포들이 민족자주의 리념에 기초하여 하나의 통일애국력량으로 결속되고 북과의 련대가 실현되게 된것은 북과 남, 해외의 민족대통일전선형성에서 하나의 주추돌이 마련된 뜻깊은 사변으로 되었다.

민족대단합의 서장을 펼쳐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 범민족련합의 결성으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실현하심으로써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이 련이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속에서 세계정치정세는 복잡다단하였지만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양양되고있었으며 전민족적단합의 기운이 높아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평양에서 북과 남의 각당, 각과, 각계각층의 의사를 대표할수 있는 지도급인사들의 북남정치협상회의를 가질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남조선피뢰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당장 남조선의 모든 정당, 단체,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실현할수 없는 조건에서 먼저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를 가지는것은 전민족적대화마당을 마련하여 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이룩하며 민족대통일전선의 형성을 촉진시킬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였다.

민족대단결로선에 대한 지지와 찬양의 기운이 높아가는 가운데 주체78(1989)년 3월말 남조선의 문익환목사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기 위하여 평양으로 찾아왔다.

1940년대에 있는 김구의 평양방문과 1980년대에 있는 문익환목사의 북행은 물론 각이한 정황에서 있는 서로 다른 력사적사실이였지만 그것은 하나같이 민족적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킨다면 어떤 신앙과 정견, 주의주장도 다 초월하여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내외에 힘있게 증시한 참으로 뜻깊은 력사의 화폭이였다.

문목사의 평양방문은 세인의 한결같은 격찬을 받았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물론 세계의 진보적민주인사들까지도 그의 장거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력사적인 범민족대회를 마련하여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놓으시였다.

주체78(1989)년 7월 여러 지역의 해외교포단체 대표들과 애국인사들이 평양에 모여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가지고 력사적인 범민족대회를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주체79(1990)

년에 판문점에서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후 남측과의 합의를 거쳐 북과 남, 해외 3자의 범민족대회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은정속에 주체79(1990)년 8월 15일 판문점과 서울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대성황리에 막을 열었다.

1990년대의 첫해에 열린 범민족대회는 주체37(1948)년에 있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와 더불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사에서 특기할 력사적인 회합이었으며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었다.

범민족대회를 전후하여 통일축구경기, 탁구유일팀의 출전,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 등 통일행사들이 진행되고 한때 반공에 섰던 세계평화련합 총재도 평양을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경륜과 민족대통일전선사상은 8.15범민족대회와 같은 전민족적대화와합과 통일대행사들을 성사시키고 전민족의 대단결이 이룩될수 있게 한 기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상설적인 통일전선체로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을 결성하여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의 공고한 조직적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상설적인 전민족통일전선체를 내올데 대한 방침에 따라 8.15범민족대회에 이어 주체79(1990)년 11월 베를린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3자실무회담이 열렸다. 여기에서는 범민련의 활동방향과 당면목표를 밝힌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고 강령과 규약초안이 심의되었다.

범민련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된 상설적인 전민족통일전선체이다.

범민족적범위의 통일적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에 이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이 결성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었다.

참으로 1990년대는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확고히 실현하고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의 조직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을 명실공히 거족적인 애국운동으로 전환시킨 격동적인 년대이다.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애국유산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이 실현되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오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은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다.

조국통일은 력사의 부름이며 이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국과 민족앞에 서는 애국자의 자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통일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조국통일, 민족대단결